

# 올 1.5만호 공급... '脫석탄에 無재해' 품격 다른 래미안

## 건설사 경영전략

### ② 삼성물산 건설부문

7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기업 부산 동래 시작으로 1.5만 가구 공급 서초 등 알짜배기 지역 공급 주목 오세철 사장 새해 '안전경영' 당부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지난해 반포3주구를 수주하며 제시한 '구반포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 투시도.

/삼성물산건설부문

지난해 7년 연속 시공능력평가1위를 달성한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올해 1만 5389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 중 일반분양 물량은 5412가구다.

7일 삼성물산건설부문에 따르면 이달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일원을 재개발해 건설하는 4043가구 규모의 '래미안프레스티지'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수원 권선6구역에 2175가구를 공급한다.

3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2990가구가 공급되며 7월은 동대문구 이문1구역에 2904가구를 분양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벤티스' 641가구와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2636가구는 일정을 검토 중인

다. 이른바 '강남4구'로 불리는 서초·송파를 포함한 알짜배기 땅에 공급된다는 점이 돋보인다.

### ◆올 1만5389가구 공급, 수주목표 공개

삼성물산건설부문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7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에 선정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사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건설업계 전체의 미래 먹거리로 손꼽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앞장섰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은 올해 국내 비금용사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했다.

도시정비업계에도 5년 만에 복귀한 뒤 알짜 사업장을 수주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은 지난 4월 공사비 2400억원 규모의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데 이어 5월에는 공사비 8087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까지 연달아 수주하며 단숨에 도시정비 수주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삼성물산

은 올 수주 목표를 이달 말 발표한다.

### ◆'현장 전문가' 오세철 사장 체제

삼성물산건설부문은 오세철 부사장이 지난해 말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되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오 사장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두바이 등 건설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조달실장을 역임한 뒤 2015년 12월부터 플랜트사업부를 이끈 현장 전문가라는 평이다.

오세철 사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안전경영'을 새해 목표로 잡으며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경영전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오 사장은 "안전과 관련된 엄격한 사회적으로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모든 임직원이 일과 행동의 최우선 가치에 안전을 두어 재해 없는 회사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장은 또 "고객 그리고 사회와의 약속인 환경과 품질을 반드시 준수하고 경영활동은 법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건설업의 자본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실력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며 "2021년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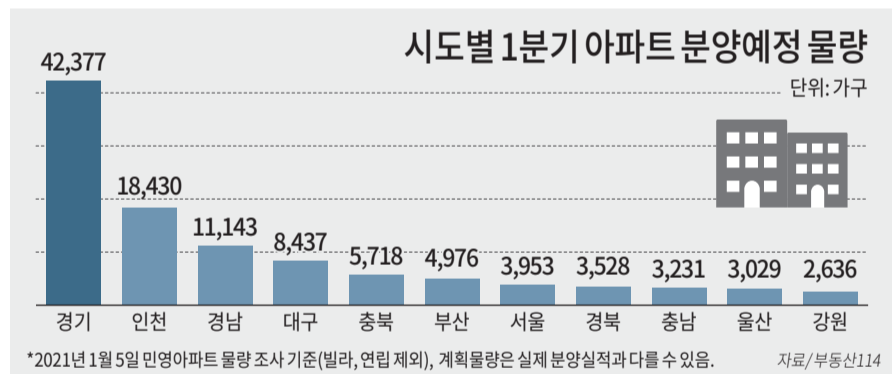
# 일정 미룬 아파트, 1분기 11만 가구 푼다... 작년의 2.4배

##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분양 전망 경기도 대규모 단지 공급 예정

올 초 분양시장은 예전 비수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주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7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중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12곳, 11만 3429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 기준)에 이른다. 이는 작년 1분기 분양물량(3만 2685가구)의 2.4배, 4분기 물량(8만 927가구)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11만 가구가 계획대로 분양될 경우 1분기 기준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역대 최대 분양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월별로는 ▲1월 3만9541가구 ▲2월 3만9971가구 ▲3월 3만3917가구 등 월평균 3만 가구 이상이 분양된다. 이처럼 1분기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작년 말 예정됐던 대단지 분양 일정이 조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분양을 앞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40곳, 7만 4896가구 가운데 15곳, 3만 686가구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사업지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말 조사 당시 12월 분양을 계획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2월 예정)',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050가구, 1월 예정)', 부산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프레스티지(4043가구, 2월 예정)' 등이 올 1분기로 분양이 미뤄졌다.

2021년 시도별 1분기 분양예정 물량은 ▲경기 4만 2377가구 ▲인천 1만 8430가구 ▲경남 1만 1143가구 ▲대구 8437가구 ▲충북 5718가구 ▲부산 4976가구 ▲서울 3953가구 순으로 많다. 분양이 집중된 수도권의 물량이 총 6만 4760가구로, 지방 4만 8669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많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풀린다.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다에스티지(2407가구)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둔전역(1721가구) ▲수원시 세류동 수원권선6구역(2175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2R구역재개발(3344가구) 등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커뮤니티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단지에 청약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 수원, 광명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의 분양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인천은 지난해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연수구, 부평구, 서구 등에서 공급

이 이어진다.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050가구)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1503가구)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우미린(118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 임대를 제외한 민영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3458가구로, 직전 분기(1130가구)에 비해 늘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서초구 반포동 반포KT부지(140가구) ▲송파구 오금동 송파오금아남(328가구) 등이 강남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남지역 분양예정 물량이 1만 1143가구로 가장 많다.

▲김해시 신문동 김해울하산위브(4393가구) ▲창원시 교방동 창원교방1구역재개발(1538가구) ▲거제시 상동동 거제상동동터샵(1288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어 대구에서는 ▲수성구 과동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1299가구) ▲달서구 송현동 한양수자인더팰리스(1021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1404가구) 등 8437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 NH투자증권 해외주식 기초자산 등 공모 ELS 7종 모집

NH투자증권이 추가연계과생결합증권(ELS) 7종을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모집한다.

ELS 20353호는 발행 후 6개월 조기상환 조건이 85% 이상이면 상환되는 조기상환추구형 상품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 50지수, 코스피(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만기 3년 상품이다.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85% (6·12·18개월), 80% (24·30개월), 75% (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3.20% (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3.20% (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 시 어느 하나라도 75% 미만이면 만기상환조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8일 금요일 오후 1시까지 7종의 ELS 상품을 총 4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청약은 NH투자증권 전 영업점 및 NH투자증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각 상품별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박미경 기자

## KB증권 'KB Wise 분할매매 ETN' 정기 리밸런싱

### 급변 장세서 변동성 축소 효과

KB증권이 'KB Wise 분할매매 ETN'의 정기 리밸런싱을 실시해 분할매매 전략에 따른 투자 효과 재개가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

'KB Wise 분할매매 ETN'은 시장

상황에 따라 코스피(KOSPI) 200 추종 상장지수펀드(ETF)와 현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이다. 하락장에서 KOSPI 200 추종 ETF를 분할 매수해 평균 단가를 낮추고, 상승장에서 ETF를 분할 매도하며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분

할 매매 전략은 급변하는 장세에서 변동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이 상품은 매년 반기 첫 영업일에 ETF와 현금이 각각 50%로 투자 비중이 조정된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ETF 0%, 현금 100%를 유지하다 지난 12월 30일을 기

준으로 KOSPI 200 추종 ETF를 비중 50%로 편입했다.

다음 정기 리밸런싱 도래 전까지 KOSPI 200지수의 변동에 따라 ETF 분할매매를 반복하며 전략적으로 비중을 조정해 수익을 추구할 예정이다. 현금에 대해서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수익(0.66%, 4일 기준)을 얻을 수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